기록인 IN

ISSUE &
FIELD

Vol
42





이슈와 현장

기록관리 핫이슈 현장



ISSUE & FIELD 1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특별전시

김병남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ISSUE & FIELD 2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

백승옥 · 국가기록원 사서주사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SUE & FIELD

01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특별전시

- “3월 1일,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

김병남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탈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자 떨쳐 일어났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로 시작된 독립선언 낭독으로 촉발된 3·1운동은 도시 등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농촌 등지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 인원도 늘어났으며, 국외로도 전파되어 만주,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그날의 흥분과 함성은 면면히 우리 가슴 속에 이어져 왔고, 우리는 매년 그날을 기리어 왔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99주년이 된다. 더불어 이번 기념식은 기존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벗어나 서대문형무소란 또 다른 역사적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기념식의 진행 또한 파격 아닌 파격과 퍼포먼스가 가미되어 일반인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념식에 맞춰 3.1운동의 의의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특별전시의 개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종래와 사뭇 다른 3.1절 99주년 기념식에 부응하는 기록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기념식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3.1운동의 의미 공유와 함께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전시공간 및 구성

전시구성

이번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10, 11, 12 옥사가 만나는 중앙옥사 부분의 일부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크게 〈도입부INTRO〉→〈기록물 소개 쇼케이스〉→〈LED 터널 패널〉→〈마무리ENDING〉의 네 부분(Zone)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도입부INTRO〉 부분(Zone)은 3월 1일 당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탑골공원에 모인 군중의 독립시위 전개 상황에 대한 소개이다. 특히 3.1 독립선언서의 주요 문구를 되새김으로써 당시 3.1운동이 갖는 의의를 알리고자 하였다.





1 부녀자들의 만세 행진
2 3.1운동 당시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 모습

아울러 3월 1일 개시된 독립시위의 전국적인 확산과 국외 전파 및 지식인과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나라 안팎에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함께 체계화하는 계기도 되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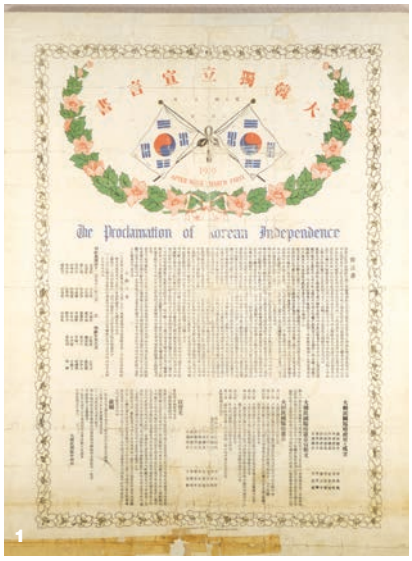
이에 따라 패널 중앙에는 3.1절 관련 만세시위에 관한 편집 영상을 제공하여 민족 구성원들의 독립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독립시위('대한문 앞 만세 시위 군중들', '부녀자들의 만세 행진', '3.1운동 당시 덕수궁 앞 만세시위 모습' 등)와 이에 대한 일본군의 무력대응 관련 이미지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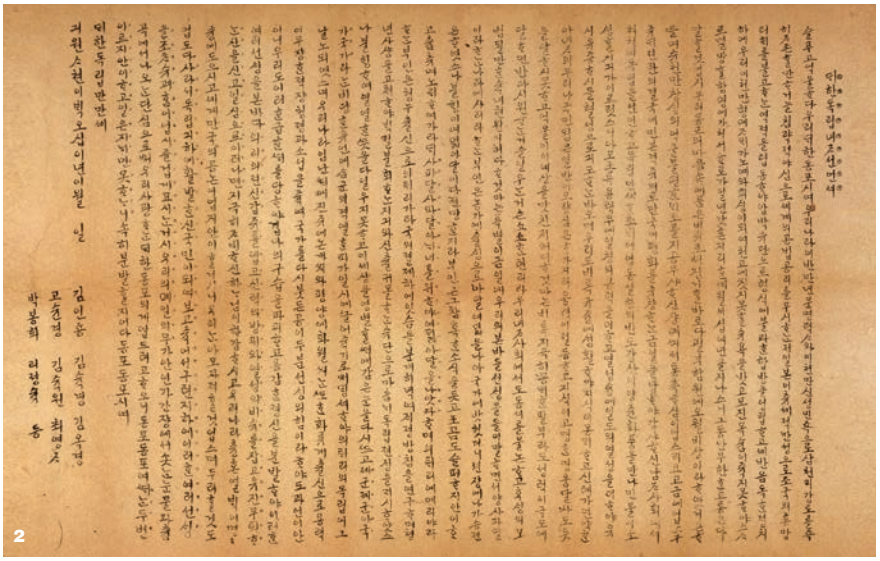
특히 일제가 1919년 4월 15일 3.1운동에 관련된 조선인들을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7호)〉(일본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에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것"을 규정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3.1운동이 발발한 뒤의 〈조선총독의 유고문(1919.4.10.)〉(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은 앞서 2회에 걸쳐 민중의 독립만세 운동을 경계하였음에도 진정되지 않자 각 지방에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보건대 3·1운동은 도시 등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농촌 등지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기록물 소개 쇼케이스〉 부분(Zone)은 서대문형무소 10, 11, 12옥사의 간수감시대를 활용한 쇼케이스로, 크게 '대한독립을 외치다', '전국민이 참여하다', '3.1의 기억을 남기다'의 3개 섹션(Section)으로 나뉜다. 우선 중앙의 '대한 독립을 외치다' 섹션은 각계 각지에서 발행한 독립선언서를 전시하였다.





1 대한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제공)
2 대한독립여자선언서(독립기념관 제공)

쇼케이스 안에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한 〈대한독립선언서〉(63.4×81.2㎝, 독립기념관 소장)를 실물(사본) 전시하였는데 태극기와 무궁화로 장식하고, 영문 제목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아래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 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명단, 임시헌장, 선언문, 정강 등이 함께 실려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어 전면 하단에는 각종 독립선언서를 전시하였다. 우선 〈2.8독립선언서〉(33×23.9㎝, 독립기념관 소장)는 1919년 2월 8일에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200여 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낭독한 선언서이다. 이 독립선언은 국내외 민족운동가에게 큰 자극을 주어 3.1운동의 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49.8×31.5㎝, 독립기념관 소장)는 3.1운동 직전 여성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글로 쓴 것으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의 성격을 띠어 당시 여성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3.1독립선언서〉(46×22㎝, 독립기념관)는 1919년 3월 1일에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33명의 민족대표 명의로 발표한 것으로, 3.1운동 당시 나온 여러 종류의 독립선언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쇼케이스 좌측의 '전 국민이 참여하다' 섹션은 각계각층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우선 〈이장옥 등 5인 대구복심법원 판결문(33.2×24.5㎝, 1919)〉은 경남 밀양의 승려들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음을 보여주는데, 이장옥은 1919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소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형무소에서 2년 6개월 복역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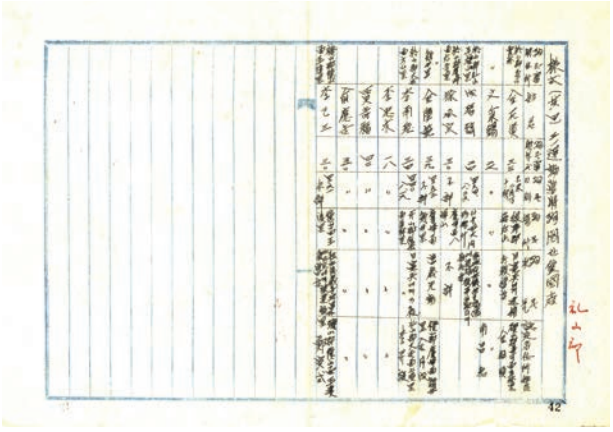


정막래 등 2인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판결문(1919)

정막래 등 2인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판결문(33.7×25.1㎝, 1919)〉은 경남 통영에서 정막래 등의 기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을 보여준다. 당시 그들은 금반지를 팔아 장례용 물품을 마련하는 등 시위 군중의 선두에 섰다. 정막래는 체포돼 제1심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또 〈이도상 등 4인 경성지방법원 판결문(33.2×24.5㎝, 1919)〉은 경기도 평택의 장날 독립만세운동을 알려준다. 이 시위로 제1심에서 쌀장수(미곡상)였던 이도상은 징역 1년, 목준상, 심헌섭, 한영수는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도상은 만세 시위 참여에 앞서 "체포될 것이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여 달라"고 의연한 심정을 동생에게 전했다 한다. 마지막의 〈손흥복 등 3인 경성지방법원 판결문(33.2×24.5㎝, 1919)〉 손흥복, 조병직(공립간이농학교), 김동건(공립보통학교) 등이 학생 30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주도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당시 손흥복은 16세, 조병직은 21세, 김동건은 17세였는데, 이들 학생은 모두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제2심과 제3심에서 공소·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이처럼 판결문 자료 중에는 3.1운동 이후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인물들에 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승려, 기생, 상인, 농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위운동에 적극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측의 '3.1의 기억을 남기다' 섹션은 3.1운동시 피징용자 명부, 해외수집기록물 등을 통해 보는 3.1운동 관련 기억들을 전시하였다. 특히 〈민족대표 판결문(30×25×6㎝, 1920)〉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손병희·한용운 등 민족대표에 대한 1920년 경성[서울]복심(覆審)법원의 재판 판결문으로, 독립선언서 준비 과정과 만세시위에 참여한 지도부의 활동 전반을 알 수 있으며,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9.8×27.3×3㎝, 1953)〉는 제109회 국무회의(1952.12.1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217쪽에 걸쳐 지역별로 645명의 희생자를 실었다. 여기에는 특히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 여사 등 일가족이 사망한 사실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세 번째 〈LED 터널 패널〉 부분(Zone)은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제의 감시대상이 된 독립운동가 6,264매의 〈수형기록카드〉(국사편찬위원회 소장)를 활용하여 민족의 저항 의지와 독립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생산된 낱장의 종이 재질로 가로 15㎝, 세로 10㎝의 카드 형식의 기록물이다. 여기에 기재된 대상은



1



2

1 한용운 수형기록카드
2 유관순 수형기록카드
3 LED 터널 패널 Zone 내용 소개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인물들로, 수형기록카드에는 수감자의 사진, 이름, 나이, 신분, 본적, 주소지 등 신상 정보와 죄명, 형명과 형기, 입소 및 출소연월일, 형무소명 등의 수형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Zone)에서는 터널형 통로에 수형카드 이미지를 두르고, 주요 인물들은 LED 조명으로 강조하여 일제강점기란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묵묵히 민족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읽고 보도록 하였다. 공간의 제한으로 이 통로 패널에는 약 1,400여 명의 독립운동 관련 인물 사진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익히 알던 안창호, 유관순, 한용운, 양기탁 등과 함께 비록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고난과 역경을 음미할 수 있다.



3

마지막 〈마무리ENDING〉 부분(Zone)은 옥사를 활용한 독립선언서 전문 패널 배치와 태극기 현수막 게시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와 현재의 우리에게 독립선언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은 직접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느끼는 감흥이 가장 직접적이지 않을까 한다.

당시 독립선언서에는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히 하는 것이니……다만 저 앞의 빛으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히 하는 것이니……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고 적었는데, 이 문장은 현재적 시점에서도 의미가 지속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1920년 3월 1일에 만세운동 1주기를 맞이하여 수감자들이 옥중만세시위 운동을 벌였다. 익히 아는 유관순 등이 주도한 이 시위는 독립운동이 일시적인 감흥과 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옥중만세시위 상황을 재현하고자 독립선언서 전문 패널을 지나면서 부분 부분에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설치하여 그 날의 감흥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독립선언서 전문 패널 및 태극기 현수막 부분

나오며

3.1운동에 이르러서 비로소 조선은 전근대적인 왕정국가에서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개념 아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수립의 열망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의 결실을 맺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독립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만주와 상해 등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각국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파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였다.

이번 3.1절 특별전시가 과거 100년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다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계속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식을 간직하는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00년의 질곡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필자소개

1999년부터 한솔문화재단의 종이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유물수집과 전시기획 및 전시(19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년에 국가기록원으로 옮겨 재직 중이다. 현재는 기록관리부 수집기획과에서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